

# “한국 문학계 이끌 인재 찾아요”

무주군, 제4회 김환태 청소년문학상 공모전 실시... 10월 14일까지 방문·우편·이메일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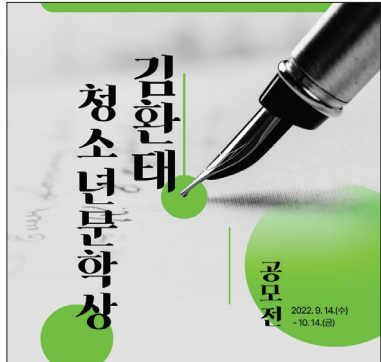
무주군은 제4회 김환태 청소년문학상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주출신 비평가 김환태 작가의 순수비평정신을 알리고 청소년들의 문예창작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10월 14일까지 작품을 접수받는다.

공모 부문은 무주와 김환태를 주제로 하는 자유형식의 문학작품(김환태문학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김환태 작품 참고)으로 대상은 전국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이다.

표지를 포함한 응모 작품 1부(첫 페이지에 제목과 학교, 학년 반,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명기 / 재학생이 아닐 경우 학교정보 생략)를 방문(무주읍 김환태문학관 사무실) 및 우편(전북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15), 이메일(hyang1511@korea.kr)을 통해 접수(기타 문의 063-320-5637)하면 된다.

단, 저작권 분쟁, 표절, 모방 등의 문제가 있거나 타 대회에 입상 또는 발표(온·오프라인)한 사실이 있는 작품은 접수 제한한다.

당선자 발표는 오는 10월 21일 무주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연락할 예정으로 주



무주군은 제4회 김환태 청소년문학상 공모전을 실시한다.

제의 적합성, 표현의 참신성, 작품의 완성도를 평가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1차에서 출품작 중 가장 이상의 우수작품을 선정하고 2차에서 심사위원 평가점수를 종합해 대상부터 가장까지

결정한다.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1명에게는 상금 1백만 원, 금상(전라북도지사상) 1명에게는 상금 70만 원, 은상(전라북도교육감상) 1명에게는 상금 50만 원, 동상(무주군수상) 3명 각 30만 원, 가작(무주군수상) 8명에게는 각 1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무주군 시설사업소 김경복 소장은 “올해로 4 회째를 맞는 김환태 청소년문학상은 문학 꿈나무들의 등용문이자 미래 한국 문학계를 이끌고 나갈 인재들을 발굴하는 믿음직한 무대가 되고 있다”며 “많은 청소년들이 참가해 꿈을 펼쳐 보일 수 있도록 홍보와 공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출신 김환태(1909~1944) 선생은 무주 출신의 한국 비평문학의 선구자로 무주군은 그의 문화를 기리고, 무주문화의 위상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무주를 당산리 일원에 김환태 문학관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또 해마다 11월 출신 김환태문학제를 개최하고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전주공예품전시관이 MZ세대 호랑이 캐릭터인 '호기로운 호사원'을 자체 개발했다.

## MZ세대 호랑이 캐릭터 '호사원' 개발

전주공예품전시관, 전통문화 알리기 위해 행사·이벤트 홍보마케팅 참여

전주공예품전시관이 MZ세대 호랑이 캐릭터인 '호기로운 호사원'을 자체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호랑이 캐릭터 '호기로운 호사원'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민화 속 가치 호랑이를 모티브로 개발했다. 씩씩하고 호방하다는 의미의 '호기로운'과 호랑이 사원이란 합성어 '호사원'을 더해 이름 붙였다.

'호사원'은 한국 전통문화를 지키고 널리 알리기 위해 전주공예품전시관에 입사한 MZ세대 호랑이라는 콘셉트의 캐릭터다.

현재 '호사원'은 전주공예품전시관 각종 행사와 이벤트 관련 홍보물에 홍보대사처럼 그려져 홍보마케팅 업무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전주공예품전시관 입구에 조성된 호사원 조형물 16종은 한옥마을 관광객의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호사원의 이미지가 담긴 '한지봉투'와 '스티커'를 제작해 공예품 구매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캐릭터 개발을 기획한 공예문화산업팀 김혜원 팀장은 “호사원은 신입사원의 당돌함과 MZ세대의 개성을 담고 있는 불속목 매력적인 '불매 캐릭터'라며 “다음달에는 카카오톡 내 '호사원 이모티콘'을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호기로운 호사원' 캐릭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예문화산업팀(063-281-1610)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전북문화관광재단-경기관광공사 '맞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 활성화 협약

전북문화관광재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기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16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지스코(GSCO)에서 경기관광공사 유대열 본부장과 재단 고준환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메가이벤트 연계 관광객 유치 활성화 공동 추진 △양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공동홍보마케팅 △포스트 코로나 신규 관광수요를 반영한 공동 코스 개발 △향후 지속가능 발전 및 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공동 준비를 약속했다.

공동 추진 사업으로는 △국의 온라인 플랫폼 및 인플루언서 활용 공동 마케팅 추진 △미이스 로드쇼 및 관광박람회 공동 참가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스 대회 연계 관광객 유치 △유네스코 한국 서해안 갯벌 생태관광 공동 홍보 등이다.



재단 관광진흥본부 김현 본부장은 “코로나 이후 관광산업 선점 등을 통한 전라북도의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심도 있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기자

## 정읍시립국악단, '다락콘서트' 첫 공연 성료

정읍시립국악단(단장 김용호)의 '다락콘서트' 첫 공연이 지난 15일 목요일 밤 정읍사공원 야외공연장에서 펼쳐져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다락콘서트'는 시민들이 다양한(多) 즐거움(樂)을 얻을 수 있도록 정읍사공원에 야간 경관 조명이 설치된 시기에 맞춰 기획된 공연으로, 정읍시립국악단의 국악으로 듣는 OST,

민요, 무용 등 다채로운 국악 공연으로 펼쳐졌다.

남은 공연은 총 3회로 9월 29일, 10월 13일, 10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에 정읍사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우천시 정읍시립국악단 소공연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 익산시, '제14회 가람시조문학신인상' 공모

익산시가 가람 이병기 시인을 뒤이어 우리나라 시조발전을 이끌 시조시인을 발굴한다.

시는 익산 출신 가람 이병기 선생의 문학작품 세계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14회 가람시조문학신인상'을 다음달 4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가람시조문학신인상은 근대 시조문학의 선구자인 이병기 선생의 정신을 이어가 시조문학 진흥발전을 목적으로 유능하고 역량 있는 시조 시인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공모 대상은 다른 문학상에 선정되지 않은 발표된 시조 작품이다. 공모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10년 미만 경력의 시조시인(2012. 9. 14.이후에 등단)으로서 최근 3년간(2019.9.14.~2022.9.13.) 우수한 작품(또는 작품집)을 발표한 시조 시인이다.

응모 방법은 소정의 공모신청서를 작성하여

가람문학관에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우편 접수는 10월 4일 18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가람시조문학신인상 수상자는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수상자에게는 1,00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조하거나, 익산시 문화관광산업과(063-859-5271) 또는 가람문학관(063-832-1891)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창작 경력 20년 이상 시조시인에게 주어지는 '제42회 가람시조문학상'은 추천제로 진행된다. 가람시조문학상과 신인상 시상식은 11월 5일 여산 가람문학관에서 문학제와 함께 개최된다.

/익산=이재춘기자



전주매일 캠페인